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이 지 수

(군산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장애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 관련요인을 밝히고, 그 구조모형에서 성별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는 젠더와 장애라는 이중적 불이익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여성장애인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상향모델과 하향모델의 통합모델로 설명할 수 있었다. 남녀 장애인 모두에서 장애의 심각성이라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존감, 사회적 지지 인식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보다 중요한 변수였고,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보다 중요한 변수였다. 본문에서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이중적 장애,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방정식 모형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하나의 구별되는 사회 집단으로 주목받은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 자조모임과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성폭력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등에 반영되는 등 장애인운동의 차원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학문적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3-B00193)

** 주저자, 교신저자

선행된 논의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취약성을 가지고 이중적 불이익, 이중 차별에 처한 존재로 개념화되었고, 이는 여러 가지 실태자료에서 뒷받침되었다. 즉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률 및 고용상의 지위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이 확인된다(변용찬 외, 2002 ; 이계준, 1997; 경원사회복지회, 2002; 성남여성의 전화, 2001).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가족과 학교, 친구나 이웃, 이성 및 배우자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중요한 인생의 국면에서도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옥, 2003). 이들은 아름다움이나 부드러움, 재생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성적 학대나 유린의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여성”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간 이중적 불이익 개념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다중적인 억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여성장애인 집단의 독자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이중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좀더 다양한 이들의 삶의 측면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단지 여성장애인이 이중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서 교육, 취업, 가정생활에서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면 자칫 넘기 어려운 사회적 장벽만을 부각시키고 여성장애인은 그 장벽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 장애는 이중적인 사회적 차별을 낳고 그 결과 자존감이 낮으며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소수집단이 곧 여성장애인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Morris(1998)는 젠더와 장애에 대한 초점을 단지 이중적 불이익과 등치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중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집단의 이슈”로 전락하게 되고 장애와 여성 모두에서 주변적인 소수집단 내의 소수집단으로 남게 되어, 결국 여성장애인을 이중적 불이익의 희생자로 취급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미, 2006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이은미(2006)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여성만이 가지는 고유의 경험이나 특성을 다루는 것에만 고착되지 말고, 젠더와 장애라는 이중적 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삶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두 가지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좀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지표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개별 지표들에서의 차이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성장애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은 다른 취약집단과 비교됨으로써 집단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여성장애인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여성장애인을 “소수집단내의 소수집단”으로 범주화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욕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장애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표현하는 그들의 주관적인 삶이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률 등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사회적 측면들이 다양하게 부각됨으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약점뿐 아니라 강점이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열악한 현실에서 착취당하는 피해자로서만 자리매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여성장애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연구물로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의 축적은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서 여성장애인의 일반화된 경험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의 정도에서 남성장애인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객관적 삶의 조건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다수의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삶에 불만족 하는지, 만약 불만족하지 않다면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그럴 수 있는지, 삶의 만족도 및 그 관련요인들에서 남성장애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30년이 경제성장의 시기였다면, 90년대 중반에는 절대빈곤층의 감소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였다(윤병식 외, 1996). 이 시기 연구들은 삶의 질의 개념과 지표, 관련변수를 밝히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OECD 국가들과 비교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윤병식 외, 1996; 박경태 외, 1995; 박종민·김서용, 2002). 또한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년기 남성, 여성, 기혼직장여성, 청소년 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김양희, 1999; 김혜은, 1997; 윤창영·이순목, 2002; 조명한·김정오·권석만, 1994).

이들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첫째, 소득, 구매능력,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바람직한 속성이나 조건을 소유한 상태이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는 상태이다. 셋째,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이다(조명한·김년오·권석만, 199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로서의 삶의 질, 즉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이다. 객관적인 속성이나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개개인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관적인 정서상태로서의 삶의 질은 단기적인 생활사건에 의해 매우 가변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90년대 중반이후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과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박재국·이미숙, 2001; 양옥경, 1994; 박승희,

2002),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관련요인을 밝히는 연구(이영숙, 1997; 진기남 외, 1999; 임민정, 1999; 백은령, 2003; 김계하, 2005)가 그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그 관련변인이나 구조를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고, 직업관련 변인이나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등 한 두 가지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류시문, 2003; 권민하, 2004; 이정희, 2006). 또한 여성장애인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비장애여성 또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한 이들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적합한가?
2. 소득·교육수준·직업유무·장애정도 등 객관적인 상황요인, 외향성·통제소재 등 성격요인,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적 해석으로서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 등 요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은 어떤 유사성과 상이성을 가지는가?

2. 이론적 논의

1) 주관적 삶의 질 -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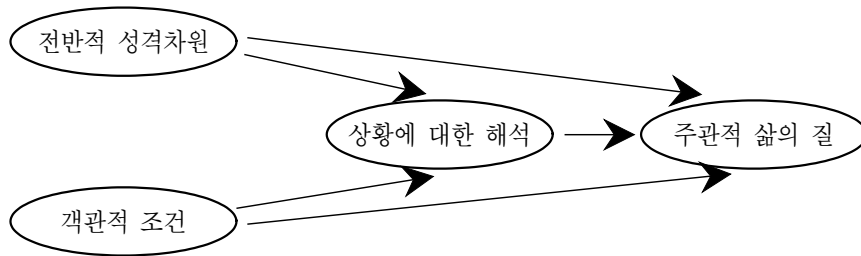
주관적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이론적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이다. “행복”이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과 경험을 많이 갖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행복은 결혼 및 가족생활, 재정상태, 주거상태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이다. 우리의 마음은 백지상태로서 경험에 의해서 형태 지워질 수 있고 감각은 외부세계의 객관적인 반영이다. 상향이론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이를 통한 행복감의 경험이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향이론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객관적인 생활조건들-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등이다(Feist, 1995; Brief, 1993).

다른 하나는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다. 개인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격 경향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요인이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생활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형적인 경향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형적 경향이 특정 영역에서의 만족 정도를 판단하는데 작동한다.

즉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상태가 아니라 감각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직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하향이론에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경향성, 즉 성격, 태도, 신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관심을 둔다. 선행연구들은 외향성, 우울 등 신경증 경향, 성실성, 통제소재, 미래에 대한 열망, 자아상, 정서적 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외향성, 우울, 통제소재 등은 삶의 질에 관련된 성격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이다 (DeNeve and Cooper, 1998; Vitterso, 2001; Chan and Joseph, 2000; Hayes and Joseph, 2003).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주관적 삶의 질에 주요한 관련 변인으로 논의되었다. 관계망의 크기, 구성, 지속기간, 밀도 등 구조적 특성이나 타인과 주고받는 지지의 정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삶의 질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Kef, Hox and Habekoth, 2000; 이수애, 1999).

최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데 관심이 있다. 즉 소득이나 건강 등 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객관적 조건과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격 등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통합모델에 따르면 ①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②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상호작용하여 ③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해석)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④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행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개인의 성격요인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해석(판단)에 작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합모델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성격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식 또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통합모델은 인지이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통합모델(Brief, 1993. 인용)

Brief(1993)는 통합모델에 기초하여 미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건강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우울로 대표되는 부정적 성격특성, 그리고 건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격특성과 객관적 조건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통합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eist(1995)도 객관적 조건으로서 건강상태와 일상적 성가심, 개인의 인지적 해석으로서 세계관과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처능력,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상하이론에 기초하여 객관적 조건을 독립변수로, 인지적 해석을 매개변수로,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하하이론에 기초하여 삶의 질을 독립변수로, 인지적 해석을 매개변수로, 객관적 조건을 결과변수로 하는 또 다른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이들 각각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하이론과 하하이론 모두가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Feist는 객관적 조건, 인지적 해석,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는 순환적일 수 있으므로 상하이론과 하하이론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내에서도 상하이론과 하하이론의 통합모델이 적용되었다.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은 통합모델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적용하여, 객관적 조건(가족소득)과 인지적 성격요인(역기능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상황에 대한 해석(자동적 사고)을 매개변인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가족소득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역기능적 신념이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명소·성은현·김혜원(1999)은 한국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매개모형을 검증하지 않고 인구학적 변수들과 성격변수들이 각각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통합모델의 검증으로서는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격변수들 중 정서적 안정성, 지적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하하이론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조건 변인들과 상하이론에서 강조하는 성격변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확인한 것이다.

2)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밝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 관련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먼저,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인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제작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Schallock, 1997; 양옥경, 1994; 박재국·이미숙, 2001; 박승희, 2002).

다음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밝히는 연구이다. 몇몇

연구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이 비장애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산출하였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장애등급, 건강수준, 경제적 수준 등 주로 객관적인 상황조건들을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이영숙, 1997; 진기남 외, 1999; 임민정, 1999).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요 관련변수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지지이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지지 기반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Malm et al., 1981; Cagnetta and Cicognani, 1999). 백은령(2003)은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이동 및 접근환경, 사회통합의 정도 등이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그는 객관적인 인구학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나 물리적 접근성 등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계하(2005)의 연구는 앞서 제시한 삶의 질에 대한 통합모델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상태와 경제수준이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태도와 가족기능,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결과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연구결과 신체적 상태와 경제수준은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와 사회적 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객관적 조건이 사회적 태도라는 인지적 해석요인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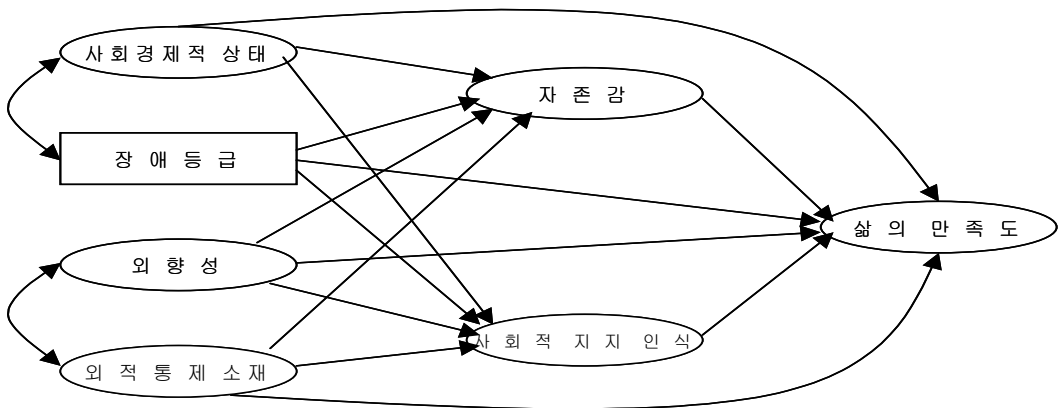
특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류시문(2003)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유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고, 권민하(2004)와 이정희(2006)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의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백은령(2004)은 개인요인 중에서는 가족수입과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환경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접근성 및 이동환경이,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성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ate, Poller, Riley(2001)는 상품구매력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대 및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참여 등 세 가지 요인들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관련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Nosek(2003)은 지체장애여성의 고용상태, 대인 친밀성, 건강유지 활동 등에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장애정도 등 객관적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자존감, 자기인식(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고립감 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경로분석 한 결과, 자존감은 세 가지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 인식은 대인친밀성에, 사회적 고립은 대인친밀성과 건강유지 활동에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비장애인,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 변인을 정리해 보면, 상향이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연령·교육수준·직업유무·장애등급·건강수준·경제적 수준 등 객관적인 상황조건들, 그리고 하향이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외향성, 우울, 통제소재 등 성격요인, 사회적 지지·이동 및 접근환경·사회통합의 정도 및 사회적 고립감 등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자존감 등의 자아개념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객관적 상황조건과 성격요인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매개로 통합되는 통합모델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통합모델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그림과 구성하였다. 통합모델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성격특성이 상황에 대한 인식(해석)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적 상태와 장애의 심각성 정도를, 성격특성으로서 외향성과 외적 통제소재를 투입하였고,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한 인식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으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을 비슷한 수로 포함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충청, 전북, 부산 등이 포함되었다. 개별 장애인을 직접 표집하고 설문하는 데에는 접근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체장애인 단체, 여성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간사를 접촉하여 도와주기로 응하는 경우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이들 전문가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설문회수를 맡은 전문가에게는 남녀가 비슷한 수로 포함될 것, 장애유형을 제한하지 않되 스스로 응답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 등이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응답자와 도움을 준 전문가에게는 작은 선물이 제공되었다. 설문대상의 표집이 무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연구로서의 한계가 있으나,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하였고,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표집 되었으므로 성별 간 특성을 비교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이었다. 총 8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561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여성장애인단체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21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수거되었다.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497부였고, 이중 남성장애인은 253부, 여성장애인은 244부이다.

3) 주요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1985)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진기남, 1998 재인용). 이 척도는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차원 척도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삶의 영역별로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iener(1985)의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한다는 본 연구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삶의 질을 생활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친구 및 대인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의식주,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 일과, 자아감 등 삶의 영역별로 측정할 경우 본 연구에 투입된 독립변인들과 개념적으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비교적 높았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장애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 성격특성,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 등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을 구성하였다. 장애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장애의 정도를, 성격 특성으로서 외향성과 통제소재를,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으로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장애의 정도는 장애등록상의 장애등급(1등급~6등급)을 측정 변수로서 하여 직접 모형에 투입하였고, 사회경제적 수준, 외향성, 외적 통제소재, 자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측정변수들을 사용하여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①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은 가족소득, 교육수준, 직업유무를 측정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가족소득은 응답자가 직접 써넣은 값을 표준화하여 투입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1~6점의 값으

로 투입하였다. 직업유무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외향성

외향성은 안창규·이경임(1995)이 제작, 표준화한 NEO-PI-R 검사의 외향성 측정 문항 중 5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NEO-PI-R 성격검사는 외향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 5가지 주요한 성격특성(Big-Five)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1995년에 표준화한 이후 다수의 심리학 논문에서 사용되었다(안창규·채준호, 1997; 이경임·안창규, 1996; 박지홍, 2002). 본 연구에서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겁다’, ‘친구들과는 매우 친밀하게 지낸다’, ‘직장 또는 이웃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등 온정적 성격을 측정하는 3문항과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잘 웃는다’ 등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2문항 등 5개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 척도의 신뢰도는 .77이었다.

③ 통제소재

통제소재는 남기철(2000)이 노숙인의 외적통제소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5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2002). ‘원하는 걸 얻으려면 중요한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내 인생에서 능력보다는 운이 중요하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등 삶에 대한 통제 능력과 권한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운명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 즉 외적 통제소재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6이었다.

④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10개 문항 중 긍정적으로 표현된 5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투입하여 구성하였다. 10개 문항은 자존감의 단일차원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으로 표현된 문항과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역점수 문항)이 명백하게 각각 다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 잠재변수에는 긍정적으로 표현된 5개 문항만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9였다.

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김인숙(1994)이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7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김인숙의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의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항목묶기 방법을 사용하여 17개 문항을 임의로 묶어서 3개의 측정변수를 만들어 측정모형에 투입하였다. 17개 문항의 신뢰도는 .95였다.

4) 분석 방법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구조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자료에 적합하도록 잠재변인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남녀집단에

모두 적합성을 가지는 구조모형을 찾기 위해 독립변인, 매개변인, 결과변인간의 모든 경로를 상정한 기본모형과 가장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남녀 집단간의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런 다음 최종모형에서 잠재변인의 평균과 구조계수에서 남녀 장애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및 절편 동일성 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모형에서 각각의 경로계수에 대한 집단간 동일화제약을 가함으로써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양상이 남녀 집단간에 다른지 살펴보았다(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6).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Index(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 측정동일성,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고 각 경로계수에서의 남녀 집단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간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거주지역과 장애유형, 직접 운전여부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거주지역에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가 많고 남성의 경우 전북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직접 운전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운전을 한다는 응답자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장애유형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청각장애인이 남성으로만 표집된 데 따른 것이고 다른 장애유형에서의 남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결혼상태, 직업유무, 교육수준, 장애등록 여부, 장애등급, 장애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가구소득, 연령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변수들에서의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평균 연령은 남성이 44세, 여성이 41세로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성이 116.9만원, 여성이 115.4만원으로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χ^2 검증값
빈도 (성별의%)				
거주지역	서울 경기	76(30.0)	108(44.3)	27.42***
	광주 전남	97(38.3)	78(32.0)	
	충청	21(8.3)	20(8.2)	
	전북	56(22.1)	24(9.8)	
	기타	3(1.2)	14(5.7)	

<표 1> 계속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χ^2 검증값
결혼상태	기혼	117(46.2)	113(46.9)	6.87
	미혼	107(42.3)	87(36.1)	
	사별	8(3.2)	15(6.2)	
	이혼 또는 별거	15(5.9)	23(9.5)	
	동거	3(1.2)	1(4)	
	기타	3(1.2)	2(8)	
직업유무	있다	79(32.1)	67(28.0)	.959
	없다	167(67.9)	172(72.0)	
교육수준	무학	16(6.5)	27(11.2)	7.57
	초중퇴·졸	43(17.4)	32(13.3)	
	중중퇴·졸	36(14.6)	39(16.2)	
	고중퇴·졸	96(38.9)	96(39.8)	
	대중퇴·졸	47(19.0)	44(18.3)	
	대학원이상	9(3.6)	3(1.2)	
장애등록 여부	했다	237(95.2)	227(95.4)	.011
	안했다	12(4.8)	11(4.6)	
장애유형	지체	139(65.3)	141(66.2)	14.74*
	뇌병변	30(14.1)	30(14.1)	
	시각	7(3.3)	12(5.6)	
	청각	12(5.6)	0	
	정신지체	12(5.6)	15(7.0)	
	정신	6(2.8)	7(3.3)	
	기타	7(3.3)	8(3.8)	
장애등급	1급	75(32.6)	63(28.4)	2.33
	2급	69(30.0)	75(33.3)	
	3급	55(23.9)	55(24.4)	
	4급	14(6.1)	12(5.3)	
	5급	7(3.0)	11(4.9)	
	6급	10(4.3)	8(3.6)	
직접 운전여부	한다	79(31.6)	39(16.2)	15.98***
	안 한다	171(68.4)	202(83.8)	
병원치료여부	치료 받는다	140(56.9)	117(49.6)	2.603
	받지 않는다	106(43.1)	119(50.4)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44.4(13.9)	41.1(12.6)	-
가구소득(만원)		116.9(116.0)	115.4(113.5)	-

*p<.05, **<.01, ***p<.001

2) 남녀 장애인에 대한 구인동등성 비교와 잠재평균 분석

측정변수를 그대로 투입한 장애등급 변수를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상태, 외향성, 외적 통제소재, 자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 등 6개 잠재변수로 구성된 측정모형이 적합하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잠재변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서 측정모형이 잘 부합됨을 보여준다(<표 2> 참조).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남성장애인	537.318(df=309, p=.000)	.886	.907	.054
	여성장애인	629.697(df=309, p=.000)	.832	.863	.065

<표 3> 측정모형

잠재변수	측정변수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수준	1.000(.639)		1.000(.739)	
	가구소득	.706(.566)	4.937***	.625(.599)	5.290***
	직업유무	.240(.412)	4.346***	.213(.447)	4.819***
외향성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낌	.637(.455)	6.205***	.846(.637)	8.515***
	직장·이웃 사람에게 친밀감 느낌	.820(.648)	8.493***	.802(.659)	8.781***
	친구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냄	1.000(.716)		1.000(.725)	
	사람들과 이야기를 즐김	.991(.668)	8.689***	.868(.637)	8.533***
	잘 웃음	.840(.575)	7.688***	.861(.628)	8.419***
외적 통제소재	주위환경 때문에 희생됨	.881(.712)	10.957***	.746(.588)	8.268***
	대부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임	.855(.725)	11.169***	.899(.737)	10.042***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음	1.000(.812)		1.000(.785)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함	.693(.600)	9.058***	.675(.585)	8.151***
	능력보다 운이 중요함	.637(.540)	8.178***	.383(.332)	4.652***
	중요한 사람을 잘 알아야 함	.206(.186)	2.711**	.282(.243)	3.412***
자존감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함	.978(.664)	9.390***	.847(.600)	8.170***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892(.681)	9.607***	.846(.636)	8.642***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음	.784(.534)	7.634***	.723(.515)	7.079***
	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997(.785)	10.843***	1.043(.799)	10.300***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임	1.000(.717)		1.000(.712)	
사회적 지지 인식	문항1-6의 합	.818(.815)	17.703***	.725(.786)	16.858***
	문항7-12의 합	1.000(.950)		1.000(.989)	
	문항13-17의 합	.948(.887)	21.067***	.919(.865)	20.453***
삶의 만족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삶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했음	.701(.514)	7.943***	.695(.512)	7.516***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	.791(.673)	10.719***	.926(.718)	10.737***
	좋은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음	1.000(.818)		1.000(.784)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음	.864(.759)	12.302***	.973(.757)	11.337***
		.766(.658)	10.481***	.789(.622)	9.239***

*p<.05, **<.01, ***p<.001

각 측정변수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적재량과 그 유의미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남성장애인 집단의 외적통제소재 요인에 대한 “중요한 사람” 측정변수만이 .0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요인적재량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상태, 외향성, 외적 통제소재, 자존감, 사회적 지지 인식, 삶의 만족 등 6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남녀집단간에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경험적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조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등급, 외향성, 외적 통제소재 등 4개 독립변인이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 등 2개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접, 간접 경로를 설정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낮은 외적 통제소재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으로의 매개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후, 남녀 두 집단에서 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표 4> 참조).

<표 4> 남녀 집단간 형태동일성 검증

		χ^2	TLI	CFI	RMSEA
남성장애인	기본모형	579.126(df=334, p=.000)	.880	.901	.054
	경쟁모형	579.856(df=335, p=.000)	.879	.900	.054
여성장애인	기본모형	680.762(df=334, p=.000)	.820	.852	.065
	경쟁모형	682.755(df=335, p=.000)	.820	.852	.065

각 집단에서 기본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유도 1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값의 변화가 미미하므로, 좀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에서 외적 통제소재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을 선택하였고, 남녀 집단간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비장애인집단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삶의 질 통합모형이 장애인집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이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 개인적 성격특성, 그리고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식(해석) 등 통합모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동일성이 입증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하여 남녀 집단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최종모형의 모든 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과 각각의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남녀 집단간에 동일하다는 동일화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 사이에 카이제곱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비교적 좋았다. 그리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를 남녀간에 동일하도록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은 TLI, CFI에서 오히려 약

간의 상승을 보였고, 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18.928로 자유도 차이 21에서 유의미하지 않아서 남녀 집단간의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녀 집단간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동일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지수와 카이제곱 차이검증

	χ^2	χ^2 차이	TLI	CFI	RMSEA
모형1: 기저모형 (형태동일성)	1262.620 (df=670, p=.000)	-	.850	.876	.042
모형2: 측정동일성	1281.538 (df=691, p=.000)	18.928 (df=21, p=.590)	.855	.877	.042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1319.782 (df=718, p=.000)	38.245 (df=27, p=.074)	.858	.874	.041
모형4: 측정, 절편 및 구조계수 동일성	1333.230 (df=731, p=.000)	13.448 (df=13, p=.414)	.860	.874	.041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절편동일성 검증을 통하여 잠재변인의 평균비교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동일화한 측정동일성모형에 다시 측정절편까지 동일화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모형3)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 RMSEA 값이 나빠지지 않았고 모형2에 비교한 카이검증 값의 차이가 38.245로 자유도 차이 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어, 관찰된 평균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집단간 잠재평균분석에서 잠재변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집단의 잠재변인 평균값을 0으로 고정하고 다른 집단의 평균값은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평균값을 추정한다. 추정된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두 집단간에 해당 잠재변인의 평균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남성장애인의 잠재변인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여성장애인의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잠재변인에 대한 남녀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요인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유의미도
사회경제적 상태	0.00	-.103	.259
외향성	0.00	-.019	.752
외적 통제소재	0.00	.004	.962
자존감	0.00	.063	.594
사회적 지지 인식	0.00	-.220	.094
주관적 삶의 만족	0.00	-.148	.156

사회경제적 상태, 외향성,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 4개의 잠재변인들의 평균값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았고, 외적 통제소재와 자존감은 여성장애인이 매우 근소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모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상태가 더 낮고, 외향적인 성향이 더 적고, 사회적 지지가 더 적다고 인식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지지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므로 추후연구에서 재차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존감 변인에서 오히려 여성장애인의 평균값이 근소하지만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남녀장애인 집단에서의 가설모형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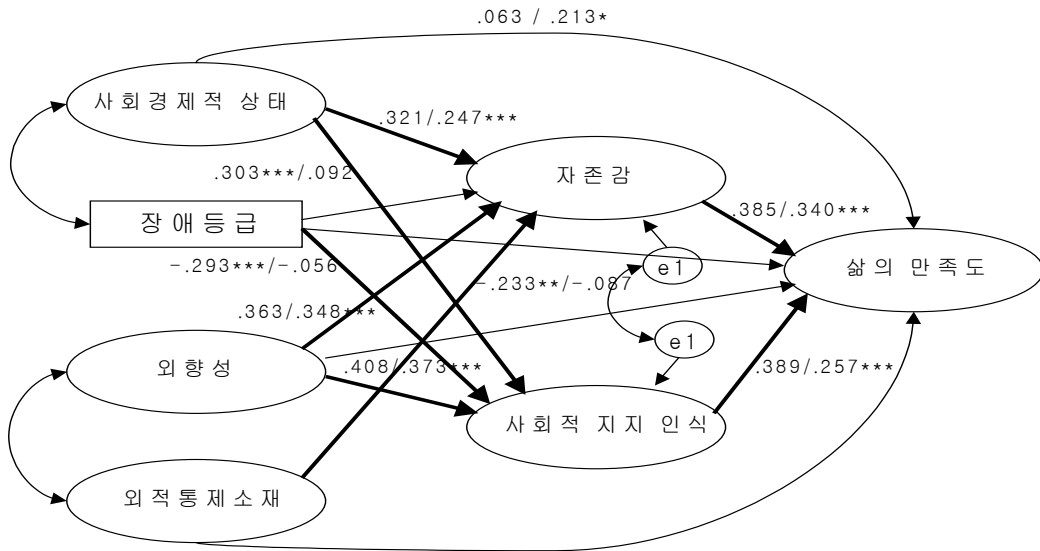
남녀장애인 집단에서 기저모형의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까지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모형4)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앞의 <표 5>에서 보듯이 모형3에 비해 모형4의 TLI, CFI, RMSEA 값이 나빠지지 않았고, 카이제곱 차이가 13.448로서 자유도 차이 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구조계수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가 남녀장애인 집단에 모두 적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계수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각각의 경로계수가 남녀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표 7> <그림 3> 참조).

<표 7> 모형의 남녀 장애인 집단별 경로계수 (측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경제적 상태 -> 자존감	.293*** (.321)	.207** (.247)
사회경제적 상태 -> 사회적 지지 인식	.333*** (.303)	.132 (.092)
외향성 -> 자존감	.397*** (.363)	.337*** (.348)
외향성 -> 사회적 지지 인식	.511*** (.408)	.403*** (.373)
장애등급 -> 자존감	-.053 (-.110)	-.042 (-.081)
장애등급 -> 사회적 지지 인식	-.160*** (-.293)	-.038 (-.056)
외적 통제소재 -> 자존감	-.142** (-.233)	-.070 (-.087)
자존감 -> 삶의 만족도	.392*** (.385)	.328*** (.340)
사회적 지지 인식 -> 삶의 만족도	.334*** (.389)	.221*** (.257)
사회경제적 상태 -> 삶의 만족도	.059 (.063)	.145* (.213)
외향성 -> 삶의 만족도	.005 (.002)	.128 (.163)
외적 통제소재 -> 삶의 만족도	-.063 (-.083)	-.046 (-.060)
장애등급 -> 삶의 만족도	.033 (.075)	.055 (.124)

*p<.05, **<.01, ***p<.001



유의미한 경로는 굵은 선으로 표기하고 남성장애인/여성장애인 순으로 표준화계수를 표기함.

<그림 3>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최종모형

①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영향

먼저,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고 인식할 때 남녀 장애인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이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하여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사회경제적 상태, 외향성, 외적 통제소재, 장애등급 등의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한 인식, 즉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 소득, 직업유무 등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관련변인이었다.

장애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하는 장애등급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장애인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장애'이다. 즉 장애인에게 장애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고, 장애는 그 자체로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과 달리 장애정도라는 객관적

조건은 남녀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어가 ‘장애’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 이외의 다양한 객관적, 또는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매개변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② 자존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

남녀 장애인 모두에서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외향성이고,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이다. 즉 외향적이고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다.

장애등급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존감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결과이다. 특히 질적 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는 선행연구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들이 장애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의 심각성이 자존감 수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장애등급과 자존감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정도가 더 심할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단지 장애라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향적인 성격, 사회경제적 상태 등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보다 오히려 경증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 통제소재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존감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삶에 대한 통제 능력과 권한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운명에 있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장애인의 경우 이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소재는 일반적으로 삶의 주도권이나 권한과 관련된 개념으로 남성적인 특성과 더욱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존감에 대해 영향력이 클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에게는 통제소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였다.

③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

또 하나의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향성이다. 외향성은 남녀 장애인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경우에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좀더 적극적이며 타인으로부터 좀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상태와 장애등급이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녀 장애인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다.

남성장애인의 경우 소득, 직업유무, 교육수준 등의 변수들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는 데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사회경제적 상태는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장애등급은 남녀 장애인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장애가 심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장애인의 경우 이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심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앞서 잠재평균 분석 결과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지 인식이 더 낮았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6> 참조). 여성장애인들 또한 “여성”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남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해서는 외향성,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등급 등 3개의 독립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향성뿐이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녀 집단간에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13개 경로계수 각각에 대하여 남녀 집단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13개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표 8> 참조).

<표 8> 기저모형과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간의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사회경제적 상태 -> 자존감	1	1.65	.000
사회경제적 상태 -> 사회적 지지 인식	1	4.149*	.001
외향성 -> 자존감	1	.639	.000
외향성 -> 사회적 지지 인식	1	1.480	.000
장애등급 -> 자존감	1	.179	.000
장애등급 -> 사회적 지지 인식	1	7.022**	.001
외적 통제소재 -> 자존감	1	.484	.000
자존감 -> 삶의 만족도	1	.219	.000
사회적 지지 인식 -> 삶의 만족도	1	1.235	.000
사회경제적 상태 -> 삶의 만족도	1	.586	.000
외향성 -> 삶의 만족도	1	1.188	.000
외적 통제소재 -> 삶의 만족도	1	.016	.000
장애등급 -> 삶의 만족도	1	.131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3	16.743	-.002

*p<.05, **<.01, ***p<.001

카이자승 차이검증 결과 사회경제적 상태가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경로, 장애등급이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화 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사회경제적 상태가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장애등급이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강하다고 하겠다.

5. 결 론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장애를 안고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규정된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삶의 조건이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삶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때로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그의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복지 실천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남성장애인과 비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남녀 장애인에 대하여 주관적 삶의 질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비장애인에게 적용되었던 삶의 질 통합모델이 장애인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잠재 평균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상태, 외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에서 남녀간의 평균차이는 없었다. 다집단분석 결과, 남녀집단 모두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듯이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의 증진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인 중 외향적 성격은 남녀집단 모두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겠다. 외적 통제소재는 남성장애인의 경우 자존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 통제소재가 낮은 사람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통제소재의 자존감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인 사회경제적 상태는 남성장애인의 경우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이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태는 자존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침과 함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서 남성의 경우보다 그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태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은 남녀집단모두에서 크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자존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때 장애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그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러한 인식에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인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정도가 사회적 지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남성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심할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중증 남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심할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부여받는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장애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던 통합모델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이 자기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신과 외부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내적 성격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어가 “장애”라는 객관적 조건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관련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잠재평균 분석의 결과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 장애, 이중 차별 논의를 좀더 구체화하는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인식, 자존감의 평균 값은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집방법의 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성장애인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사이에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사회경제적 상태의 잠재평균은 오히려 여성이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이 남성보다 낮지 않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이중적인 장애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까지 부정적이고 무력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여성장애인의 이중 차별 논의는 이들에게 무력한 희생자라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동일한 조건이거나 오히려 다소 열악한 조건에서조차도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이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변화매개로 하는 역량강화 실천이 가능하고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존감, 자아상 형성과정에 대해 좀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삶의 질 구조모형의 요인 간 관계에서 남녀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장애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두 변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매개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의 강조점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남성장애인에서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의 표준화 계수가 각각 .385와 .389로 비슷한 반면, 여성장애인에서는 각각 .340과 .257로 자존감의 영향력이 더 크다(표7 참조).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등급 등 객관적인 조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관련되는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존감을 매개로 하거나 매개요인 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존감을 향상하거나 사회경제적 상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이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소득을 증진하는 것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원사회복지회. 200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지역연계망 구축 간담회 자료집”.
- 권민하.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선진 외. 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계하. 2005.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명소·성은현·김혜원. 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 41-55.
- 김미옥. 2003. 『장애인복지 실천론』. 서울: 나남.
- 김양희. 1999. “여성의 삶의 질 지표개발”. 『여성연구』 7(1): 251-312.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화. 1999.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사회적 지원과 삶에 대한 통제감”. 『여성연구』 7(1): 223-250.
- 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혜은. 1997. “여성의 삶의 질 : 심리학적 접근”. 『여성연구』 5(1): 95-132.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시문. 2003.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태·박병영·유석춘·이선이·이영희. 1995.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25-106.
- 박승희. 2002. “한국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2): 41-78.

- 박재국·이미숙. 2001. "장애인의 삶의 질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 1-25.
- 박종민·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시아연구』 45(2): 141-164.
- 박지홍. 2002.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성격특성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재활연구』 14(2): 255-280.
- 변용찬·김성희·윤상용·정민아. 2002.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2-42.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2002.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서울 : 나눔의 집.
- 성남여성의 전화. 2001.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성정현·이영미. 2003. "건강, 교육, 취업현황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욕구-사회단체 회원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복지』 7(1). 47-77.
- 안창규·이경임. 1995.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 정문사.
- 안창규·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양옥경. 1992. "정신장애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 131-153.
- _____. 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 157-198.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혜경. 2002. "기혼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재활복지』 6(2). 55-81.
- 오혜경·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 유동철. 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1). 73-108.
- 윤병식·정우진·이현송·연하청·한성덕·박주현.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창영·이순목. 200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조모형 : 기혼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43-72.
- 이경임·안창규. 1996. "NEO-PI-R의임상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65-79.
- 이계준. 199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 및 고용기회 확대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수애. 1999. "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여성연구』 7(1): 177-222.
- 이영숙. 1997. "재가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2006. "여성지체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희. 2006. "사회적 관계망이 중증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민정. 1999.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환·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명환·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집문당.
- 진기남·엄승연. 1999. "장애인 취업과 삶의 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Brief, A. P.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653.
- Cagnetta, E. and Cicognani, E. 1999. Surviving a serious traffic accident : Adaptation proces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4): 551-564.
- Carter, S. D. 2004. "Reexamining the temporal aspects of affect : relationships between repeatedly measured affective state, subjective well-being, and affective disposi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381-391.
- Chan and Joseph. 2000. "Dimensions of personality, domains of aspi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347-354.
- DeNeve, K. M. and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2): 197-229.
- Diener, E.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Sandvik, Pavot and Fujita. 1992.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U.S. national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205-215.
- Hayes, N. and Joseph, S. 2003. "Big 5 correlates of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4): 723-727.
- Hanna, W. J. and Rogovsky, E. 1991. "Women with disabilities : Two handicaps plu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6(1): 49-63.
- Hughes, R. 2005. Characteristics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6: 473-479.
- Kef, S., J. J. Hox and H. T. Habekoth. 2000. "Social networks of visually impaired and blind adolescents. Structure and effect on well-being". *Social Networks* 22 (1): 73-91.
- Malm, U., May, R. A., and Dencker, S. J. 1981.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the schizophrenic outpatient : A checklist, *Schizophrenic Bulletin* 7(3): 477-486.
- McBride, M.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5: 251-278.
- Morris, J. 1998. "Feminism, gender and disability".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in Sydney, Australia : February.
- Nosek, M. 2003. Self-esteem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737-1747.
- Pavot, W., Fujita, F. and Diener, E. 1997. "The Relation between Self-aspect congruenc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2): 183-191.
- Poysamb, E., Harris, J. R., Magnus, P., Vitterso, J. and Tambs, K. 2002. "Subjective well-being : Sex-specific effects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211-223.
- Schalock, R. L.(ed). 1997. *Quality of Life : Volume II. Applic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hington, D. C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Schimmack, U. and Diener, E. 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100-106.
- Tate, D. G., Poller, S. and Riley, B. 2001. Quality of life for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Clinics of North America 12(1): 23-37.

Vittersø, J. 2001.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stability, not extraversion, is probably the important predic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6): 903-914.

The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A Gender Comparis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ife Satisfaction¹⁾

Lee, Ji-Su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 (1) to find out subjective well-being structural mod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2) to compare the female's subjective well-being structural model with male'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of non-disabled, I applied a integrative model of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to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ere gathered from 497 persons with disabilities(253 males and 244 females) in Korea.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female's level of life satisfaction is not different to male's. In female group, the objective life conditions(the level of education, family income, and to have jobs or not) and self esteems are important variables in subjective well-be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male group, on the other side, recognition about social support level is important variable.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 women with disabilities, double handicaps,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논문접수일 2006. 12. 29. 게재확정일 2007. 3. 24.]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5-003-B00193)